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이번 주 수요일은 8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순서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천안 단비교회에서 열립니다. 참가희망자는 8월 7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차를 가지고 교회에 올 경우, 몸이 불편한 교우들을 위해 교회 마당에 주차를 피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료수나 먹을 것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식 당 봉 사 : 유경순 이은옥 최경미 이수정b이은정 최재욱 김윤수
 8/14 식 당 봉 사 : 장혜숙 박성실 원인해 정경례 심상숙 이선희 김신옥
 이건설 최영혜
 오늘설거지봉사 : 이준하 노우종 강미선 유상진
 다음 주 설거지 : 류준모 심호선 한대훈 박시내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9(통53). 하늘에 가득 찬 다함께
-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십시오. 갑작스레 밀려드는 빗물과 토사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이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루아침에 살 곳을 잃어버린 1만 명의 이재민을 도우시사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모두가 행복한 평화의 세상을 꿈꾸지만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치와 이념이 충돌하는 곳에서 늘 낮은 자의 편을 드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억할 뿐 아니라 주님처럼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마11:28-30 인도자
- ♣ 교 독 문 6. 시편10편 다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대표기도 방문성 장로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388(통441). 비바람이 칠 때와 다함께
- ♣ 성경봉독 I. 행27:20-25 리 봄 선생
 II. 출22:21-27 진정숙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찬 양 찬양대
- 말 씬 I.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김재흥 목사
 II. 입을 다물고 손을 펴라 김기석 목사
- 거둠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한인철 조윤숙 한상균 안보혜 박찬덕 이광용 형인순 한수현 곽새롬
 문희창 김지호 전해리 박옥식 김철수 유영남 김근종 정옥영 김용진
 박효선 김운수 정복순 최종원 이진영 한양미 무명

월정헌금:

문홍일 김범진 김미현 허준호 이주율 이경남 김문주 김용태 박정숙
 윤주원 최윤선 이광섭 이유선 방극숙 이정은 최윤희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김성은 김혜권 박재임 이준림 박윤숙 무명

감사헌금:

이정은 김성한 조영순 최선미 박현주 김혜권 김미순 박두석 이건화
 오현창 이선화 주요한 김남종 오복순 윤정덕 구성실 무명

녹색꿈헌금:

박홍재

생일감사헌금:

	장혜숙	백혜숙		
	노순옥	정경례		
	임정자	최경미		
	문영혜	이명희		
	안정숙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운		
	이순정	김금순	심	심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이현숙		
	이영란	박미영		
	박혜경	조항미		
	김재흥	오자영		
	김기석	이건식		

오목한 사랑

백무산

양손에 무얼 들고
 내려놓으려는데 자리를 못 찾아
 허둥대는 사람은 중얼거리지
 오목한 것, 오목한 것 하고 중얼거리지/
 저절로 오목한 건 혼치 않아
 그릇을 빚고 등지를 짓고
 두 손 오므리거나 팔 벌려 껴안거나
 오목한 것은 그래서 그릇이 아니라
 씹씹이 같은 것/
 나를 들고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고인 물처럼 악취가 나지
 나를 내려놓고 툭툭 털고 싶을 때
 통통 부운 마음 내려놓고 싶을 때
 오목한 것/
 내손을 떠나서도 내가 빗물처럼 흩어지지 않게
 정갈하게 받아두었다가
 지친 걸음으로 돌아오면
 옛 시간을 말갱게 빨아 개어두는
 무의식 같은
 눈동자 같은
 오목한 나의 사랑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양	517. 가난한 자 돌봐주며	다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어려움을 당한 이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로 들으며 사십시오. 말로 판단만 하지 말고 그들 곁에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며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이웃의 어려움을 이야기꺼리로는 자주 삼으면서,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의 부르짖음을 주님의 부르짖음으로 들으며 살겠습니다. 찢기고 헐벗은 주님의 몸을 감싸는 마음으로, 그의 상처 난 몸과 마음을 감싸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말씀 : 김기석 목사 기도 : 최윤선 집사	8월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김태환 선생
	김기석 목사	한상의 장로	김극 집사

7월	영접위원	한상의 허호범 윤성종 최숙화 박성실 김윤정
	헌금위원	한완식 정경례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가까이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자신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거대한 도시, 수많은 집단, 그 속에 홀로 서 있는 한 개인…….

이런 생각을 하면 나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미약하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군중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고립된 자리에 물러나 있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도 귀가 얇아지고 박수 소리만 들어도 금방 흔들린다.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도 하지만 그 성취감의 결과로 남보다 위에 서는 사람으로 있기를 바란다.

돈의 위력을 실감하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니게 되고, 권력의 전지전능함을 맛보면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길을 찾아다니게 된다. 단 하루도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쫓기듯 삶의 별판을 누비고 다닌다.

그렇게 사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달라져 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때 묻고 혼탁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저녁, 혼자 되어 [채근담] 한쪽을 펴 보면 고요하게 가라앉은 샘물 옆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권세와 이익과 사치와 화려함은, 이것을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을 깨끗하다고 하지만 이를 가까이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을 더욱 깨끗하다고 한다. 잔재주와 권모와 술수와 교묘함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을 높다고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더욱 높다고 한다.

세리분화(勢利紛華).

권세와 명리와 사치스러움과 화려함은 사람들이 얼마나 동경하는 것인

가.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추악해지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고결하다고 한다. 청렴하고 결백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하기 위해 마음을 식은 채처럼 가지고 세상 모든 것과 관계를 끊어 버린 채 살아갈 수만은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비리와 불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깨끗한 사람일 것이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교묘하게 남을 속여 넘기거나 잔재주를 부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의 사람됨에 고개를 숙인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인격이 높은 사람일 것이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과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후자가 훨씬 더 고매한 사람일 것이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어도 꽃 그 자체는 흙 하나 묻지 않고 피어 있는 것처럼 그의 인격은 빛날 것이다. 녹녹한 강가나 늪지에 알을 낳으면서도 그 새가 빨흙 속에서만 살지 않고 푸른 하늘을 날며 살도록 키우는 어미 새들처럼 그의 정신은 아름답다울 것이다.

벼가 너무 뻣뻣하게 심어져 바람 하나 통하지 못하다가 서로 붙어 썩어 가는 병을 '문고병'이라 한다. 많은 벼들이 함께 있으면서도 썩지 않고 자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 존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거리와 여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 있으면서도 썩지 않으며, 여럿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멈추어 있는 구름 같은 마음 가운데서도 솔개가 날고, 고요한 물결 같은 마음속에서도 물고기가 뛰노는 듯한 기상이 있어야 이것이 도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심을 잃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고, 상황과 때에 따라 마음을 잃고 흔들리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순간순간 어떤 일에 부딪힐 때마다 망심, 즉 허망한 생각과 샷된 마음에 빠지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이다. 그러나 고요한 밤 홀로 되어 가만히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와 보면 아직도 때가 덜 묻은 자기의 청정한 본심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소리 없이 되살아나는 본래의 무구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 ...

- 「도종환의 삶의 이야기」 중에서